



퇴임 남원의용소방대장 2명 연합회 고문 위촉

남원의용소방서(서장 남철희)는 20일, 남원의용소방대 연합회 발전과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 퇴임한 전(前) 연합회장 2명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 위촉된 고문은 공은태 전 남성연합회장장과 곽정화 전 여성연합회장 등 2명으로, 재임 기간 지역사회의 안전과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국민포장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남원의용소방서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퇴임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재능 대을 전문지식을 후배 대원들에게 전수하고, 연합회의 각종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남철희 남원의용소방서장은 “앞으로도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남원의용소방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돌봄 전문가 과정 수료식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일, 올해 마지막 직업교육훈련 '온맘 돌봄 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온맘 돌봄 전문가 과정은 노인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노인 돌봄 실무교육과 우수 장기요양기관 현장견학, 현장실습, 생활지원사 자격과정을 훈련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총46일간, 184시간 진행, 고령사회에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중·장년 여성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직업교육훈련으로, 노인돌봄 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으로 추진하였다.

오픈선 여성가족과장은 수료생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 지역의 여성들이 취업하여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여름 휴가철 맞아영화상영관 불시단속

순창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관계인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시설 훼손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2026년 전북대병원 발전후원회 후원의 밤’ 개최

역대 병원장·후원자 180여명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환경 조성 다짐

전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가 의료위기 극복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발전후원회(회장 윤방섭)가 최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6 전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전북대병원 이사장)을 비롯해 역대 병원장, 발전후원회 위원, 후원자, 의료계와 지역사회 주요 인사 등 180여 명이 참석해 전북대병원의 발전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김인희 진료부원장의 사회로 윤방섭 발전후원회회장의 개회사, 양종철 병원장의 환영사, 양오봉 총장의 축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영상 축하에 이어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 발전후원회 운영 현황 보고, 병원의 미래 비전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발전후원회의 활동과 후원자들의 나눔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되새겼다.

이날 공로패는 발전후원회 출범을 이끌고 첫 후원자로 나눔의 시작을 알린 제18대 정성후 병원장과 초대 회장으로 후원회 기반을 마련한 윤방섭 회장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발전후원회 최고액 후원자인 고(故) 김창규 대왕제지 회장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155차례 후원을 이어온 제일약국 우에노 유리코 약사, 병원 재직 중 꾸준한 나눔을 실천한 전영선 수간호사에게 각각 전달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병원의 역사를 함께해 온 역대 병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갈등 등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지켜온 병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장수군, 농업인 유튜브·숏폼 콘텐츠 제작 교육

장수군은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인 7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숏폼 콘텐츠 제작 교육’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농업인의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스마트폰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낮 시간 영농활동으로 참여가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야간반을 별도로 개설했으며, 주간반과 야간반(A·B반)으로 나눠 과정별 2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개설과 채널 배너 꾸미기, 라이브 방송 운영, 유튜브 숏츠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콘텐츠 제작 실습 등 실제 온라인 홍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전국 남녀 궁도대회서 진안 농특산물 홍보

진안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4회 용치전투기념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서 지역농업경영체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마켓은 지역 농업인이 소비자와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판매 부스는 홍삼절편, 발효식초, 반골 등 진안을 대표하는 건강식품과 냉면, 장아찌주먹밥, 타코 등 간편식을 선보였으며, 시식 행사와 생산자의 제품 설명을 함께 진행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산내면, 관내 어르신 대상 삼계탕데이 열려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 및 독거 어르신 등 80명을 대상으로 건강간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가득 영양대접 삼계탕데이’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과 제철 과일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거동이 불편해 식당 동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 이장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한 어르신은 “더운 날씨에 혼자 밥 챙겨 먹기가 번거롭고 외로웠는데 이렇게 삼계탕을 먹으니 기운도 나고 즐겁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산내면 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단속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자의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두 바퀴 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특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예방 대책은 오는 9월 30일까지 두 바퀴 차 안전모 미착용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북 15개 대여업체에서 운행 중인 지쿠 킥보드 총 8,139대를 대상으로 대여 앱 내에서 안전 수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